

이슈브리프

No. 2025-34

북한의 당창건 80돌 기념행사 평가 : 제9차 당대회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한기범 객원선임연구위원

서보배 연구원

2025-10-28

북한은 9월부터 '노동당 창건 8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시작하여 10월 초순에 노동당 창건 80돌을 '경축'하기 위한 무장장비전시회, 경축대회 및 대집단체조, 열병식, 군중 시위 등 각종 행사를 마쳤다. 북한의 이번 당창건 기념행사는 '노동당의 승리와 영광의 80년 영도'를 회고하여 '창당 정신'을 계승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절대 충성을 유도하여 유일영도 체제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행사였다. 북한은 당의 영도,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10여 년의 치적을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로 부각하고 '우리 국가제일주의' 정신을 고취함으로써 김정은 권위 절대화를 도모했다. 아울러 간부들에게는 창당 시기 '혁명' 열의 재점화를 통해 당의 투쟁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는 당에 대한 '신심과 고마움'을 주입하여 향후 제9차 당대회에서 '전 인민 총동원'을 위한 동력 확보를 꾀한 행사였다.

이처럼 북한은 이번 당창건 80돌 행사를 다가올 제9차 당대회를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主): 핵심적인 당 영도 업적 선전 + 부(副): 총동원 분위기 조성'을 기획했다면, 9차 당대회에서는 '주(主): 중기 비전 및 과제 제시와 총동원 결의 + 부(副): 구체적인 당 사업 총화'가 예상된다. 이번 당 행사에서의 김정은 연설을 통해

향후 정책 기조는 '전면적 부흥 가속화를 위해 제2의 건국 시대를 표방함과 동시에 제2의 천리마 운동을 전개하여 간부들의 충성심과 주민들의 애국심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을 토대로 북한의 당창건 80돌 행사를 종합하면서 그 형식 및 내용상의 특징을 김정은의 치적 선전 평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며 9차 당대회 정책 기조를 개략적으로 전망한다. 북한은 이번 행사에서 각종 신무기 개발을 과시하였고, 김정은 정권 출범 이래 최대의 외국 인사를 초청하여 체제 과시와 더불어 외교력 확장을 도모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행사의 대외적 성격 및 무장 장비 분석은 간단하게 짚고 보다 전체적 맥락에서 행사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9월 사전 '경축' 분위기 조성 불구 직접적인 주민 시혜 미흡

북한은 연초에 '노동당 8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자'는 구호를 제시했고, 9월엔 구체적인 성과로 '축하'하기 위한 증산 투쟁을 독려했다. 예컨대, 노동신문은 생산 현장에서 "어머니당에 드리는 로력적 선물을 마련해 간다"(9.16)거나 "전 인민적총진군의 힘찬 보무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에서 3, 4분기 계획을 완수했다"고 선전했으며, 당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해주-재령 도로 개건 공사 개통식"(9.20)을 했고, "은파광산이 증산 목표를 점령"(10.9)했다고 보도하는 등 증산 성과도 나열했다.

당국의 주민 위무(慰撫)를 위한 친(親) 인민 시책도 이어졌다. 김정은이 "양강도 농촌에 굴착기를 보냈고"(9.24),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에서는 김정은이 보내준 "선물 전달 모임"(10.3)이 있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당창건 80돌을 맞으며 대사(大赦)를 실시한다"는 정령을 발표했다. 또 노력(勞力) 혁신자, 공로자, 모범 군인들로 '경축 행사 참관단'을 구성해 경축대회, 열병식 등 각종 행사를 참관하는 특혜를 부여했다. 지역 및 기관별로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를 진행했고, 재일본·중국 조총련에서는 '충성의 편지 채택 모임'이 있었다(10.2).

특징적인 것은 당창건 80돌임에도 불구하고, 증산 투쟁·충성 결의 등 밑으로부터의 경축 분위기 조성에 비해, 생활비 인상·생필품 무상 공급 등 대대적 시혜 조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 간부들에게는 다량의 선물이 전달되었는지 몰라도,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보내는 '선물'은 소수 단위에 국한되는 등 대(對)주민 시혜 조치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특이했다. 물론 지난해부터 지방 발전, 보건·교육 시설 확충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선전하고 있지만, 그 사업들은 10년 계획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당장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최고지도자가 모를 리 없다. 이는 충분한 시혜 물자 확보에 실패했거나, 최근 수년간 '보상' 기제를 활용할 수 없었던 사정이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번 당 행사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으나 이때의 "인민"은 집단으로서의 인민이나 동원 대상으로서의 인민을 의미할 뿐이다.

10월 다채로운 행사로 김정은 지도력 부각

북한의 이번 당창건 80주년 기념행사는 과거 5, 10주기와 비교할 때 형식 면에서 4가지 지점이 달라졌다. 첫 번째로 행사가 다채로워졌다는 점, 두 번째로 행사마다 거의 매번 김정은이 연설했다는 점, 세 번째로 비교적 큰 규모로 외국 인사들을 초청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열병식에서 다종의 신무기를 출현시켰다는 점이다. 내용 면에서는 분야별로 당의 '영도' 업적, 특히 김정은의 치적 선전에 치중한 것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김정은의 연설 내용 분석을 통해 후술한다.

첫째, 행사의 다양성이다([표 1] 참고). 이번 행사가 과거 10주기 행사보다 다채로운 이유는 대규모 경축대회, 집단체조, 열병식, 군중 시위를 연이어 진행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규모 인력 동원과 장기간 연습이 필요해 집단체조나 열병식 중 선택하여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시차를 두고 동시에 진행해 '경축 수위'를 높였다. 게다가 '무장장비전시회'를 병행하였고, 평양종합병원 개막식을 앞당겼으며(11월에 실제 개원), 당창건사적관 참관 행사를 추가하여 '국방력 발전', '인민 사랑 시책', '당의 영도력 강화'라는 김정은의 '전면적 발전 업적'을 부각하고자 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김정은의 '영도력'을 기획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연초에는 지방경공업 공장, 살림집, 온실, 양식장 등 김정은의 '건설 사업 선도'를 보여준 데 이어, 3~5월에는 핵미사일 고도화와 함께 전차, 구축함 등 '재래식 무기 현대화' 추진을 부각했다. 6월 당 전원회의 이후부터는 매달 '경제계획 완결' 가능성을 예고해 '생산 정상화' 업적도 시사했다. 최근 9월 초 중국 전승절 참가 직후에는 "핵보유국 지위 불가역화"를 이루고 북한을 "세계정치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한 김정은의 외교 업적을 부각했으며,¹ 이번 당창건

행사에서 “당의 영도력·투쟁력 강화”를 통해 “전면적 부흥의 고조기”를 맞게 한 김정은의 업적을 소개함으로써 치적 선전의 절정에 이르렀다.²

둘째, 김정은의 잦은 기념 연설이다. 김정은은 10월 초 당창건 기념행사가 진행되는 일주일 사이에 5차례 공식 연설을 했다. 각각 ‘국방발전-2025’ 개막연설(10.4), 평양종합병원 준공식 연설(10.6), 당창건사적관 방문 기념연설(10.8), 경축대회 연설(10.9), 열병식 연설(10.10)이었다. 연설 세부 내용은 후술할 것이나, 김정은이 연이은 행사를 소화하고 있다는 자체가 통치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양호한 건강 상태를 보여준다. 특히 베이징에서 중러 지도자와 나란히 선 이래 측근들의 빈번한 ‘지도력 칭송’으로 김정은이 고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김정은이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내부 정책 성과와 대미 및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연설을 하면서 “인민의 국가에 대한 공지가 최상에 올랐다”라고 자화자찬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³

셋째, 북한은 이번 행사에 여러 나라의 고위 인사들을 초청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2인자가 방북했으며,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와 라오스 국가주석이 방북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졌다.⁴ 니카라과 선거관리위원장, 브라질 공산당 전국부위원장, 적도기니 민주당 제1부총비서 등도 평양을 방문했고, 일본 및 중국의 조총련 대표단과 해외 친북인사들도 초청했다. 이번 행사에 11개국 대표단을 초청하며 김정은은 물론 김정일 정권 이래 최대 규모의 해외 인사 초청에 성공하였다.

김정은은 중러 서열 2인자들, 그리고 베트남 최고지도자와 나란히 여러 행사장에 출현했다.⁵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 북-중-러 연대를 재차 대외적으로 과시했다거나, 중러 2인자들 앞에서 신무기를 공개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해석이 있다. 이외에 베트남, 라오스 수뇌들을 불러 사회주의권 연대와 함께 남방 외교 확충을 도모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김정은이 ‘열강의 지도자와 동급’이라는 내부 정치적 선전효과를 노리고 해외 인사를 조연으로 초청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김정은이 ‘사회주의권 연대의 중심에 북한이 위치’한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넷째, 이번 당창건 열병식에서의 무기체계 공개 규모는 이전 열병식에 비해 작았으나 더 많은 신형 무기의 출현이 포착되었다.⁶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 병력 1만 6천여 명과 주민들을

포함해 약 4만 명을 동원했으며 12종 60여 대의 장비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체계 31종 공개한 2015년 70돌 열병식이나 ICBM 16기를 공개한 2023년 건군절 75돌 열병식에 비해 규모는 작았으나 신형 무기는 더 많이 출현하여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춰 북한의 국방과학 기술력 과시를 의도했다.

열병식에 등장한 주요 무기체계는 한국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 8기, 최신형 다탄두 '화성-20' 탑재 추정 이동식 발사대 3대가 식별되었다. '화성-20'은 "최강의 핵 전략무기 체계"로 선전된 바 있다. 또한 광을 타격권에 둔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6' 4기도 식별되었다. 재래식 무기로는 신형 전차 '천마-20', 신형 방사포(다연장 로켓포), 신형 155mm 자주포가 등장했으며, 우리 군에도 없는 다연장 자폭 드론 6대가 탑재된 차량형 발사대도 공개해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도 과시했다.

[표 1] 당창건 80돌 경축 행사

날짜	행사명	행사 내용
10.03	중앙연구토론회 - 지방토론회 별도 진행	• 토론문 당·정·군 주요간부, 당중앙간부학교장 발표 • 김정은 업적 중점 칭송, “일심 충성” 결의
10.04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개막	• SRBM, 순항미사일, SLBM, ICBM, 무인기 전시 • 김정은 연설: “한국이 안전한지 판단해야” 위협
10.05	구축함 '최현호' 참관	• 무장장비전시회 일환. 金 “해군 가속적 장성” 주장
10.05	영화상영주간·예술 행사	• 인민문화궁전, 김정은 업적 담은 기록영화 상영
10.05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 중앙당 간부들, '혁명전우관' 참관 '혁명' 열의 고취
10.06	평양종합병원 개막식	• 5년 만에 지연 준공. “인민사랑의 기념비” 선전 • 金, “보건 혁명 첫 결실, 제2평양종합병원 추진”
10.08	당창건사적관 참관	• 金, 간부 대동 '80년 당사의 승리와 영광' 회고 - 창당 정신 계승, “당 권위 훼손 색출”, “제2 건국”
10.09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발표	• 제목: “위대한 당의 령도는 주체조선의 힘이며 승리이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돌에 즈음하여”
10.09	도시군 보고대회 진행	• 김정은 영도 업적 찬양 및 충성 결의
10.09	김, 해외인사 접견·회담	• 러 집권당 의장·中 총리 접견, 베트남 총비서 회담 • 중러 '뒷배' 과시, 사회주의권과의 연대 부각
10.09	경축대회 및 집단체조	• 金 연설: 당 영도 '승리' 비결, '인민 사랑' 일색 • 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조선로동당 만세' 관람
10.10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당정치국 상무위원 비롯 당·정·군 간부들 참배
10.10	경축 국가연회 진행	• 목란관, 김정은을 비롯 내외인사, 조용원 건배사
10.10	열병식 진행	• 김정은 연설: 군대 업적 칭찬, 충성 독려 • 전시회 장비 + ICBM '화성-20' 등 퍼레이드
10.11	군중시위 및 햇불야회	• 박태성, 최룡해 등 당정 간부 참석(김/조 불참) • 김정은 영도 업적, '충성의 일심단결' 선전
10.12	경축 행사 참가자 및 보장성원 격려	• 김정은 “국가의 강대성, 저력 과시해줘 감사”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조선로동당 만세' 재공연
10.12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김정은 '김일성주의·김정일주의 관철' 다짐

출처: 필자 정리

김정은 연설 내용 분석

김정은은 이번 당창건 80돌 관련 무기박람회, 종합병원 준공, 당창건사적관 방문, 경축대회 및 열병식 행사에서 5차례 연설을 했다. 이들 연설의 핵심 내용은 당의 영도 업적으로, 김정은의 치적 선전 목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무장장비전시회 연설에서 “80년 당의 행로에서 국방공업 성과가 가장 훌륭하다”고 했고,⁷ 평양종합병원 건설은 “인민 사랑의 기념비”라고 했다.⁸ 당사적관 방문 및 당창건 경축대회에서는 80년 최장의 집권 비결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정립에 있다고 했으며,⁹ 열병식에서는 “힘에 의한 주권 수호”가 가능한 강군 육성을 치적으로 내세웠다.¹⁰ 부문별로 업적을 선전한 셈이다.

연설 내용 전반으로 볼 때 80년 당 영도사, 특히 김정은의 10여 년 핵심 치적으로 유일영도 확립과 핵무기 개발을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제8차 당대회 이후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다”(당사적관 연설)고 하였고 “우리 당은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는 물론 대외관계에서도 거대하고 급진적인 발전을 안아왔다”(경축대회 연설)고 주장함으로써 주민들 사이에 김정은의 영도에 대한 ‘신심과 고마움’을 고취하려 했다.

외부 인사와 주민들이 참석하는 본행사인 경축대회와 열병식에서는 대체로 선전 일색이나, ‘무기전시회’ 개막식과 당창건사적관 연설에서는 과제도 제시되었다. 우선 군사 부문(무기전시회, 열병식)에서는 “해군 전력의 전면적, 가속적 장성”을 주장하면서 “최현급 구축함을 2026년 10월 10일까지 추가로 건조하겠다”라는 계획을 공개했고,¹¹ 열병식에서는 “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우세” 유지 및 “군기 확립”을 강조하면서 향후 “사회주의 위업 수행 투쟁에서도 군대를 전위에 세울 것”이라며 여전히 노동군(勞動軍) 역할도 요구했다.¹²

주목되는 점은 ‘최현호’ 시찰 시 “한국 내 중요 표적에 ‘특수자산’을 할당해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인지는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위협하면서 함정 모니터에 NLL 전자해도를 띄워 이 일대에서의 공격 능력을 과시했다는 점이다.¹³ 또 열병식 연설에서는 김정은이 “이 기회에 우리 당과 정부가 앞으로도 혁명무력과 함께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하는...공동투쟁에서 자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¹⁴ 이는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는 의미로 해석되나, 북-중-러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향후 내부 정책 기조와 과제에 대해서는 당창건사적관 방문 연설(10.8)에서 거론했다. 김정은은 앞으로 “제2의 건국과 같은 전면적 발전기를 추동”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전 인민 총동원’과 간부들의 ‘혁명’ 열의 재점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욱더 과감한 분발력과 분투로 10년 안에 모든 분야, 모든 부문, 모든 지역을 새롭게 변천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민들의 애국충정을 거대한 동력으로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투쟁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 가장 확실한 우세와 예비력은 전체 인민의 비상한 정치적 자각과 과감한 분발력”이라면서 “공민들의 애국충정이 전면적 국가 발전의 속도와 질을 규제한다”라고 하여 ‘제2의 건국 시대’에 ‘제2의 천리마 운동’과 같은 전 주민 총동원 체제 가동을 예고했다.¹⁵

창당 시기와 같은 간부들의 ‘혁명’ 열의 재점화도 독려했다. 김정은은 당 사업에서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며 “간부 대렬의 정간화, 당 대렬의 정예화” 강조했다. 또한 “당의 영도적 권위를 훼손시키는 온갖 요소들과 행위들을 제때 색출·제거할 것”과 간부들의 “무지·무능과 무책임, 보신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와 함께 전횡과 특세, 직권남용을 일소”할 것을 주문했다. 간부들에 대한 주문의 핵심은 결국에 있었다. “혁명의 진군 가속화”를 위해 “창당 세대의 정신과 투지를 심신에 재우고 높은 혁명 열의를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¹⁶

[표 2] 당창건 행사 계기 김정은 연설 요지

날짜	연설(발언) 요지
10.04 10.05	• (10.04)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개막식 연설 - “80년 당의 행로에서 국방공업 성과가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 - “한국 내 중요 표적에 ‘특수자산’을 할당해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인지는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위협 • (10.05) 무장장비전시회 2일 참관 일정에 따라 구축함 ‘최현호’ 시찰 - “자위적 국방노선의 실증”, “해군 전력의 전면적, 가속적 확대 장성 투쟁” 주장 “최현급 구축함을 2026.10.10까지 추가로 건조하겠다”라는 계획 공개 * 함정 모니터에 NLL 인근 전자해도 띄워 이 일대에서의 공격 능력을 과시
10.06	• (10.06) 평양종합병원 준공식 연설 - “보건 혁명의 첫 결실”,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라며 ‘인민 사랑’ 선전 - 보건성 등 보건부문 간부들의 구시대적 사고방식, 보신주의 등 비판 - ‘보건현대화추진 그루빠’ 설치, 제2평양 종합병원 건설 추진 등 향후 계획
10.08	• (10.08) 당창건 80돌 즈음 당창건사적관 방문 기념 연설 - 80년 당사의 ‘승리와 영광’ 회고, ‘사회주의 위업 완수’ 다짐 - 최장수 집권당 비결: 인민대중제일주의, 유일 영도 보장, 당규율 확립 - 제2의 건국 시대 추진: 10년 안에 더 빠른 더 과감한 전면적 발전 추구 - 이를 위해서는 “인민들의 애국충정을 거대한 동력으로 준비”시켜야 하고 - “간부들은 창당 정신과 혁명 열의 재점화”하며 “당의 권위 훼손 요소를 색출”하며 “보신주의, 형식주의, 전횡과 특세를 일소해야 한다”고 주장
10.09	• (10.09) 저녁, 당창건 80돌 경축대회 기념 연설 - “우리 당은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는 물론 대외관계에서도 거대하고 급진적인 발전을 안아왔다”고 자화자찬 - “사회주의 력량의 일원으로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는 날로 강화”되었다며 사회주의권과의 협력·연대·강화를 시사 - 당 위업 ‘승리’ 비결로 “인민을 위한, 인민의 힘에 의한 역사”와 “당의 사상적 일색화 및 조직적 단결, 당내 사소한 분파적 경향도 불허”, “인민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 동원”한 점을 거론하며 당의 “친 인민성” 중시 - “우리가 지금과 같은 기세로 몇 해 동안 잘 투쟁하면 얼마든지 우리 손으로 우리 생활을 눈에 띄게 개변할 수 있고 우리가 리상하는 목표에 보다 가깝게 가 닿을 수 있다”고 희망을 제시
10.10	• (10.10) 당창건 80돌 경축 열병식 연설 - 열병식을 통해 “힘에 의한 주권 수호를 확인하게 될 것” 주장 - “당의 부름에 무조건적”인 군대의 역할 칭찬 및 감사, 파병도 정당화 - 향후 “사회주의 위업 수행 투쟁에도 군대를 전위에 세울 것임” 기대 - “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우세” 유지 및 “군기” 거론 - “무력과 함께 패권 반대 투쟁”을 거론하며 러시아 파병 정당화

출처: 필자 정리

결론 및 전망, 정책 시사점

북한의 이번 노동당 창건 80돌 행사의 특징은 9월에는 기대감을 조성하면서 10월에는 다양한 행사 진행, 행사마다 김정은의 연설, 김정은 집권 이래 최대 규모로 외국 인사 초청, 열병식에서 다종의 신무기 과시를 통해 김정은 업적을 부각한 것으로 요약된다. 내용 면에는 당의 영도 업적 소개를 통해 김정은의 치적을 과시하면서 내부 결속과 대외적으로 체제 건재 과시를 도모했다. 아울러 당의 '투쟁력 강화'를 독려하고 '전 인민적 총동원'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9차 당대회 이후 체제 관리 동력을 확보하려 한 행사로 평가된다. 북한도 이번 행사에 대해 "우리 당과 국가의 절대적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당에 대한 인민의 신뢰와 충성심을 분출시킨 대정치축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¹⁷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10월의 당창건 80돌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올해 정치 일정도 분야별로 김정은의 치적 부각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치적 선전은 내년에 소집될 9차 당대회의 '5년 당 사업 총화'에서 구체적으로 종합될 것이다. 이와 함께 김정은의 9월 최고인민회의 및 10월 당창건 기념 연설에 부분적으로 드러난 정책 기조를 토대로 차기 당대회에서 정책 비전과 과제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의 북한 정치행사와 정책 논조로 볼 때 9차 당대회에서 밝힐 사업 '총화'와 과제는 '김정은이 전 분야에 걸쳐 전면적 부흥기를 열어젖혔고, 앞으로 전면적 발전을 가속하는 제2 건국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9차 당대회에서는 각 분야에 걸쳐 '화려한' 청사진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간부들의 '혁명' 열의를 재점화하며 '전 인민 총동원'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9차 당대회에서의 권력구조는 10월 행사를 통해 당의 업적을 선전했다는 점에서 조용원을 중심으로 한 현 지도부를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이며, 김정은이 정책집행에서의 '패배주의와 형식주의'를 수시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중간 간부층을 대상으로 한 쇄신이 예상된다. 한편 세간의 관심 대상인 후계문제는 김정은의 나이와 건강으로 볼 때 거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또 이미 10월 행사를 통해 국제적 위상 부각 활동을 했기 때문에 9차 당대회는 해외 경축 사절 초청 없이 내부 행사로만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김정은의 권위 절대화와 더불어 사회주의 성격 강조, 당의 통제 강화, 총동원 분위기

조성으로 체제의 경직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도시와 농촌, 경제와 군사, 보건과 교육, 핵과 재래식 무기 동시 발전을 추구하면서 자원관리의 왜곡 현상도 극심해질 것이다. 9차 당대회 직후 한동안은 집중적인 '혁명' 열의 및 노력(勞力) 쥐어짜기, 대(對)러 밀착에 이은 대(對)중 관계 복원으로 경제 안정이 가능할지 모르나, '정책 탄력성 부여, 선택과 집중'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가는 총동원 방식으로는 체제의 활로 개척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최근 김정은은 북-중-러 연대로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북한의 위상 변화는 핵미사일 고도화를 통한 자신감을 토대로 미중 패권 대결이 낳은 신냉전 기류에 재빨리 올라탄 결과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러시아 파병 같은 모험주의적 도박을 한 데 이어 러시아를 통한 대(對)중 우회 접근 같은 특유의 등거리 생존전략을 구사했다. 이렇게 이론 외교적 성과로 당장은 북한의 주변 정세가 최고로 유리한 시기인지는 모르나, 앞으로는 불확실성 속에 던져진 내리막길이 될 것임을 김정은도 모를 리 없다.¹⁸

북한은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체제 관리의 모순이 누적되면서 10년 단위로 부분적인 변화를 모색했다. 예로 들어, 1990년대 초 나진·선봉 개방과 대(對)남 유화 접근, 2000년대 초 7.1 경제관리 개선과 대서방 문호 확대, 2014년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에 따른 시장화·분권화 확대 조치가 있다. 특징은 개혁과 반개혁이 지그재그식으로 교차하면서도 경제 '개혁'의 폭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2020년대에는 김정은의 핵 개발 고집과 미중 경쟁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고조, 북-중-러 연대 추구로 '변화' 모색이 지체되고 있으나 북한 체제의 구조적 모순 즉, 정치·군사 구조와 경제·사회 구조의 탈구(脫臼) 현상이 극심하다는 점에서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식 강성 권위주의 체제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전례로 볼 때 특히 9차 당대회 직후 1년은 내부적으로 정책 주입 및 '결사 관철' 독려로 매우 분주할 것이다. 그러나 곧 현재와 같은 경직되고 대결적인 대내외 정책 관리 방식은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고 북한은 자체 개혁으로 모순을 치유하거나, 대외 도발로 모순을 은폐하는 선택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 및 선동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대화채널 구축에 조급해하기 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추세를 관망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의 한껏 높아진 콧대가 앞으로 어떤 외교적 책동으로 이어질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한미동맹 이간과 중국의 지나친 대북 경사를 경계하고, 국제무대에서 '두 국가론' 고착을 위한 '대적 투쟁' 강화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대남 면에서는 '단절과 무시' 주장과는 달리 한국 정부에 영토조항 개헌, 국가보안법 개정 등 '본질적인 유화책' 유도를 위해 NLL 인근 수역 재(再) 분쟁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24년 초 김정은이 '민족통일 폐기'로 역할 재정립에 들어간 대남 부문 종사자들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회색 지대 도발로 '성과'를 도모할 가능성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저자

한기범 박사는 국가정보원에서 20여년 북한 분석관으로 활동하다가 2009년 2월 3차장(북한 업무 총괄)을 끝으로 퇴임했다. 퇴임 후 고려대 초빙교수,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3년 4월 ~ 2016년 2월 국정원 1차장(북한 및 해외 업무 총괄)을 다시 맡았다. 이후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에 이어 북한연구소에서 석좌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2024년 1월부터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도 활동을 시작했다.

- ¹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절대적 권위는 강대한 조선의 존엄이고 위상이다," 『노동신문』 (2025.09.13.)
- ² "당창건사적관참관행사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노동신문』 (2025.10.09.)
- ³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노동신문』 (2025.09.22.)
- ⁴ 러시아에선 푸틴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통합러시아당 의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중국에서는 리창 총리가 방북함. 중국 총리의 방북은 2009년 원자바오 당시 총리 방문 이후 16년 만이고, 베트남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18년 만임. 중·러·베트남 지도자들은 10월 9~11일 평양에 체류함.
- ⁵ 경축대회와 열병식에서 김정은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리창 중국 총리, 왼편에 '또 럽' 베트남 총서기, 그 왼편에 메드베데프 통합 러시아당 의장이 자리잡음.
- ⁶ "북, 한반도·괌·워싱턴 한번에 때릴 '미사일 3중세트' 내놔다," 『조선일보』 (2025.09.22.)
- ⁷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개막식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노동신문』 (2025.10.05.)
- ⁸ "평양종합병원 준공식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노동신문』 (2025.10.07.)
- ⁹ "당창건사적관참관행사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노동신문』 (2025.10.09.)
- ¹⁰ "조선로동당창건 80돌경축 열병식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노동신문』 (2025.10.11.)
- ¹¹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개막식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노동신문』 (2025.10.05.)
- ¹² "조선로동당창건 80돌경축 열병식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노동신문』 (2025.10.11.)
- ¹³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2일 참관일정에 따라 개막식참가자들과 함께 구축함 '최현'호를 돌아보시었다," 『노동신문』 (2025.10.06.)
- ¹⁴ "조선로동당창건 80돌경축 열병식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노동신문』 (2025.10.11.)
- ¹⁵ "당창건사적관참관행사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노동신문』 (2025.10.09.)
- ¹⁶ Ibid.
- ¹⁷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80돐 경축행사참가자들과 보장성원들을 축하격려하시고 대집단체제와 예술공연을 함께 관람하시었다," 『노동신문』 (2025.10.13.)
- ¹⁸ "[사설] 중·러 '병풍' 세운 김의 생존외교...그 현란한 변신에 대비해야," 『동아일보』 (2025.10.13.)